



05

기관·공기업이 ExitWise를 써야 하는 이유

매각은 끝났는데,
설명은 왜 **감사** 때 막힐까

공공자산 매각에서 진짜 시험대는 거래가 아니라 그 이후의 감사와 국정감사입니다. ‘왜 이 가격에, 이 시점에 팔았는가’를 객관적 근거로 문서화하지 못하면, 정당한 매각도 책임 문제가 됩니다.

ACT 01 현실 THE REALITY	ACT 02 위기 THE RISK	ACT 03 전환 THE SHIFT	ACT 04 결과 THE RESULT
공공자산 처분은 시세 한 줄이 아니라 절차·근거·투명성으로 평가받습니다. 담당자는 매각보다 ‘설명 가능성’에 더 큰 부담을 집니다.	감사·국감에서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적정한 매각도 특혜·헐값 논란에 휘말립니다. 사후에 근거를 끼워 맞추는 일은 더 큰 리스크를 부릅니다.	ExitWise는 건축물대장·실거래가·등기·시세 등 공공데이터를 출처와 함께 자동 연동해, 산정 근거가 추적 가능한 기관급 문서를 만듭니다. 가격 산출의 모든 단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왜 그 값이었나’에 데이터와 출처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매각 과정 전체가 감사·국감에서 그대로 통하는 근거 문서로 정리됩니다.

공공 매각의 책임을 지켜 주는 4가지 CORE CAPABILITIES

 01 출처 추적형 근거 문서 공공데이터 출처를 명시해 산정 과정을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02 객관적 가격 산정 NOI·Cap Rate·실거래가 기반으로 매각가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합니다.	 03 감사 대응 기관급 IM 감사·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제출 가능한 일관된 포맷의 매각 자료를 생성합니다.	 04 전문가 검증 연계 감정·법무 전문가 연결로 산정과 절차의 객관성을 한층 보장합니다.
--	--	--	---

산정 근거

주관 → 출처

데이터 출처까지 문서에 기록

감사 대응

사후 → 사전

팔기 전에 근거를 갖춰 둬

매각 과정

구두 → 문서

전 단계를 추적 가능하게 기록

“공공의 매각은 잘 파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되는 것입니다.

ExitWise는 모든 결정에 출처와 근거를 남깁니다.

— 투명한 절차가, 담당자의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